

재현 중심의 기록학 - 담기, 관리하기, 보기

류 한 조, 이 희 숙*

1. 머리말
2. 담기 영역
 - 1) 무엇을 담을 것인가
 - 2) 어떻게 담을 것인가
3. 관리하기 영역
 - 1) 업무이용가치와 재현가능성이 공존하는 기록관리 체계
 - 2) 재현을 위한 기록과 출처주의의 재해석
4. 보기 영역
 - 1) 재현중심의 기록활용 확장
 - 2) 아카이빙과 재현의 조응
5. 맺음말

[국문초록]

최근 기록학은 생산되어 있는 기록을 관리하는 역할을 넘어, 가치있는 대상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전승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록학에서는 업무나 조직, 주제의 맥락 내에서 관리하는 방법론이 존재하지만, 하나의 대상을 아카

*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빙하는 이론적 방법론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하나의 대상을 아카이빙하여 재현하는 이론적 방법론을 기록의 가치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보존할 대상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아카이빙 하고, 이를 재현하는 방법론은 담기·관리하기·보기라는 3가지 장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담기에서는 대상이 가진 가치를 식별하여 재현을 위한 전략에 바탕을 둔 다큐멘테이션 방법론을 다루었다. 대상의 가치에 근거하여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정의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 재현대상을 오브제와 행위의 개념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대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므로, 가치를 지닌 단위인 재현단위 개념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아카이빙 할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하였다.

관리하기에서는 재현이 가능한 구조로 관리하기 위한 재현계층과 재현 메타데이터를 설명하였다. 개별기록에서부터 최종 재현대상까지의 계층을 제시하고 원활한 재현을 위해 필요한 메타데이터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보기는 이론적으로 아카이빙한 기록을 이용한 재현과정을 개념적으로 설명하였다. 보기는 대체로 기술적인 영역이지만 개념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설명하여 재현을 위해 재현주체가 어떻게 아카이빙 할 것인지를 정하는 작업에서부터 어떻게 관리할 것 인지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러한 작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기록학이 다루어야 하는 영역을 재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확장할 것은 제안하였다.

주제어 : 재현, 아카이빙, 기록화, 가치 아카이빙, 재현 단위

1. 머리말

최근 문화적 가치를 지닌 것들이 재조명받으면서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보존·전승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보존하는데 있어서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최초의 상태로 보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기록학계에서는 가치 있는 것을 ‘아카이빙’하여 ‘재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재현하다’의 의미는 ‘다시 있게 하다’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재현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재현주체와 재현 소비자에 의한 왜곡과 총체화가 일어나게 되므로 원형 그대로 보존·전승하기 어렵게 된다.¹⁾ 완전한 재현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치있는 것’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판단과 선별이 일어나게 된다. 오히려 불가능한 전체를 재현하기보다 재현의 본래 목적인 ‘가치’를 재현하여 가치부여자의 보존·전승하고자 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즉 ‘대상의 가치를 재현하는 것’으로 대상을 재현하게 된다.

대상의 가치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통해 대상을 담고, 관리하여, 다시 보는(재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상을 재현할 수 있도록 담아내야 하는데, 그 도구로 기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바꾸어 말해 ‘대상을 아카이빙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다큐멘테이션의 과정을 거쳐 재현의 재료인 기록이 생산되고

1) 재현의 왜곡과 총체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류한조·김익한, 「기록콘텐츠 개발모형에 관한 연구 : 건축문화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 9권 제1호, 한국기록관리학회, 2009를 참조하십시오.

수집되는데, 이 과정은 업무기능이나 조직 관점이 아닌 재현대상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는 곧 재현대상 중심의 기록관리 필요성을 부각시키게 된다.

기록학적인 접근에서 보면 기존의 기록의 1·2차적 가치를 토대로 한 관리에서 재현대상에 종속되는 기록관리 체계로의 이동이 된다. 기존 기록관리체계가 업무행위에 의해 기록이 생산되고 업무이용가치를 중심으로 수립되었다면, 재현대상 중심의 기록관리체계는 가치 있는 대상을 다큐멘테이션하면서 기록이 생산·수집되며 대상의 충실한 재현이 가능하도록 접근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록에의 접근은 기록의 활용가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기록활용은 정보·증거·현물로서 주로 이용되었다면, 재현중심의 기록활용은 기록을 재현의 재료로 이용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가치가 비교적 명확한 문화재조차 가치와 별개로 외형중심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홍파동 홍난파가옥 등 8개소 등록문화재 : 기록화 조사 보고서』²⁾를 보면, 홍난파가옥을 철저히 외형적으로만 담아낸 모습을 볼수 있다.

홍난파라는 인물과의 관계가 홍난파가옥이 등록문화재 90호로 지정될 수 있었던 큰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서 사용한 ‘기록화’ 방식은 건축학적인 접근에만 집중되었다. 홍난파에 대한 내용은 백과사전을 인용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가옥에 대한 위치와 구조만이 강조되어 있다. 홍난파가옥을 기록화하는데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가치를 담아내지

2)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홍파동 홍난파가옥 등 8개소 등록문화재 : 기록화 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06

못하고 있는데, 이는 재현 가치에 근거하여 대상을 기록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대상의 가치가 다큐멘테이션 되지 않았으므로 재현 가치에 근거한 재현이 어렵다고 하겠다.

가치에 근거하긴 하지만 재현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수행한 『아현동 사람들 이야기』³⁾가 그 예이다. 이 보고서는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사라져가는 아현동의 옛모습을 남기고자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아현동 사람들 이야기』에서는 아현동의 '도시민속'을 '인간에 대한 이야기',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 '사물에 대한 이야기'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현지 상주조사 위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아현동의 도시민속을 조사하여 보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도시민속이라는 가치에 근거하여 접근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재현을 위한 가치를 설정하고 구조화하지 않았다. 도시민속 그 자체를 접근 틀로 설정하여 가치의 범주를 지나치게 크게 설정하였고, 이로 인해 가치와 아카이빙(조사)해야 할 대상의 연결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이 보고서는 아카이빙 대상이 좁혀지지 않은 채로 아카이빙 과정이 하나의 샘플링과 같은 형태로 귀결되는 모습을 보인다. 부분을 통해 전체를 표상하는 방식이기보다 의도하지 않은 선별이 개입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보면 문화재청과 민속박물관의 방식은 '가치에 근거한 재현'과는 거리를 보이고 있다. 무엇인가를 다른 매체를 통해 보존하는데 있어서 '재현가치의 구조화'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대상이 가진 가치로 인해 대상을 보존하려는 수요자는

3) 김현경·이건욱, 『아현동 사람들 이야기』, 국립민속박물관, 2008

재현의 과정을 통해 가치를 소비하고자 하지만, 문화재청과 민속박물관의 방식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고 하겠다.

그러나 기록학계는 기록의 재현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재현을 위해 기록을 생산하고 수집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방법론이 개발되고 있다.⁴⁾

비단 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가치와 재현에 근거한 기록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쇠고기협상과 촛불집회, 용산재개발과 용산참사와 같이 보존가치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 별도의 연계 없이 관리되고 있으나, 그 수요는 이들이 함께 묶이기를 원하고 있다. 이용자 요구에 따라 대상이 가진 가치를 담아내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가치에 근거한 ‘재현단위’를 설정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록의 재현가능성에 근거한 시도는 기록학의 범주 확장과도 맞닿아 있다. 업무에 의해 생산·이관된 기록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가치 있는 대상을 담아낸 기록을 생산해내고, 그것을 재현이 가능한 체계에서 관리함으로써 대상을 재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관리체계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기록의 생산·수집, 분류·기술 등의 관리, 기록의 활용을 재현대상 중심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에 본고는 재현을 중심으로 하여 각 단계에서 적용되어야 할 원칙과 과정을 개념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4) ‘오늘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시도가 대표적이다. 주요 활동과 적용한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아카이빙한 오늘』, 제1회 전국기록인대회 발표문을 참조하시오.

2. 담기 영역

1) 무엇을 담을 것인가?

대상을 아카이빙하려면 우선적으로 아카이빙 대상과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중 아카이빙 대상 즉, 무엇을 담아내어 재현하는가의 문제는 가치 측정과 분리될 수 없는 영역으로 아카이빙의 시작점에 해당한다. 무엇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인가가 아카이빙에서 선행해야 하며, 어떻게 아카이빙할 것인가는 아카이빙 할 대상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이후에 결정되어야 한다.

무엇에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가치 있는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며, 가치 없는 기록을 처분하는 것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즉, 아카이빙할 대상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기록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며,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기록을 처분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한 가지 방식으로 일원화될 수 없으므로 판단이 어려워진다. 대상의 속성에 따라 그 측정방식이 달라져야 하고, 측정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하나의 대상이 다양한 방면의 가치를 지닐 수 있으므로 각각의 방면에서 지니는 가치를 모두 측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

재현대상의 가치를 재현하는 것은 재현대상 전체를 재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는 재현대상에 대해 각각의 방면에서 측정된 가치가 재현대상을 재현하는 구성요소를 제공하며, 가치의 재현은 가치부여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재현대상의 가치를 파악하고 측정하는 것은 대상을 재현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작업인 것이다.

재현 대상의 가치를 파악하려면 우선 재현대상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그 속성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가치 있는 재현 대상의 단위를 설정하여, 가치가 부여되는 유의미한 단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작업이다.

가치 있는 대상범주가 선정되었다면 대상을 분해하고, 분해된 대상 각각의 속성에 따라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재현대상은 오브제(Objet)와 행위(Activity)로 분해하여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재현대상의 분해와 범주화는 아카이빙의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오브제와 행위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아카이빙 방식이 달라진다. 오브제와 달리 행위는 그 행위를 반영한 최초의 기록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집이 행위를 재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아카이빙 방식을 반영하여 재현대상을 분해하여 접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효과적인 아카이빙을 위한 방식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오브제는 고정적 실체로 존재하는 사물·인물 등의 대상을 의미하며, 행위는 휘발성을 가지는 동작·사고·업무 등을 가리킨다. 이들은 각각 존재방식이 다르므로 가치가 부여되는 방식 또한 구분된다.⁵⁾ 오브제는 고정적 실체가 존재하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거나 촬영하여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5) 행위는 휘발성이 강하다는 특징으로 인해 오브제와 다른 가치부여 방식이 필요하다. 콘텐츠학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가치재현 대상을 유·무형으로 분리하여 접근하기도 한다. 콘텐츠학에서의 복원과 재현에 대한 또 다른 논의는 김민옥, 「무형문화의 복원과 재현을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조선시대의 민의상달제도 신문고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6호, 인문콘텐츠학회, 2005를 참조하시오.

가능하다. 그래서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의 선택이 오브제의 아카이빙에서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행위는 고정적 실체가 없고 휘발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므로 행위가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해야 하는데 물리적 제약 조건으로 인해 한계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 생산된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행위를 매우 중요한 다큐멘테이션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특징에 따라 다큐멘테이션의 주요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재현대상은 개별적인 오브제와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오브제와 행위의 조합물을 가리킨다. 재현대상에 해당하는 오브제와 행위의 개념은 매우 분해된 개념이므로 그 자체로 재현 가치를 지니기보다 보통 조합된 형태로서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오브제와 행위는 재현가치를 지니는 하나의 재현대상의 하위 개념에 속하게 된다. 가령 ‘연주회’라는 하나의 대상은 ‘연주자’, ‘연주회장’, ‘연주악기’, ‘연주행위’, ‘관중’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치 역시 ‘연주회’ 뿐만 아니라 ‘연주자’, ‘연주악기’, ‘연주회장’, ‘관객’ 등 모두에게 각각으로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연주행위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연주자와 연주악기는 ‘오브제’에 해당하게 된다. 가치를 부여받은 하나의 연주회는 다수의 오브제와 행위로 구성된 재현대상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아카이빙 주체가 어디까지를 아카이빙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카이빙의 첫 번째 지점이 된다. 아카이빙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하나의 행위 혹은 오브제를 아카이빙 할 것인지, 혹은 행위와 오브제의 조합으로 구성된 대상을 아카이빙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행위와 오브제의 조합물을 다시 조합해야만 원하는

재현대상을 설정할 수 있다.

아카이빙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역시 대상의 재현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재현할 대상의 행위와 오브제를 개별로 완결성있게 아카이빙하면서도 이들의 조합인 재현단위의 재현이 가능해야 한다. 즉, 재현단위의 구성요소가 되는 행위와 오브제가 그 자체로 하나의 재현물로 기능하면서도 그들의 합이 더 큰 재현대상의 재현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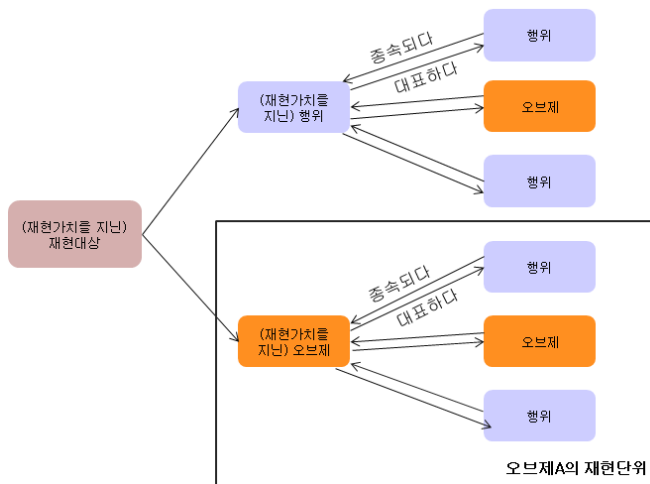
이렇게 각각의 행위와 오브제가 완결성있는 형태로 아카이빙 되면서도 이들의 합이 재현단위의 재현물이 된다면, 그 결과물 간의 '계층적 재현'이 가능하게 된다. 행위와 오브제가 각각 재현되면서 행위와 오브제로 구성된 재현단위 역시 자연스럽게 재현될 수 있으며, 재현물의 집합인 재현단위들은 하나의 오브제나 행위의 상위계층 재현이 된다.

재현대상으로 선정된 각각의 오브제와 행위를 완결성있게 재현하려면 각각의 가치와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아카이빙 전략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한다. 아카이빙 전략 프레임워크를 사용함으로써 아카이빙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아카이빙 전략 프레임워크는 하나의 오브제나 행위가 다른 오브제나 행위와의 관계를 통해 가치와 특징이 재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재현프레임은 구조적으로 재현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현단위의 설정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재현단위에서 아카이빙 전략 프레임워크에 중심이 되는 오브제나 행위는 이들 각각의 가치와 특징을 보여주는 다른 오브제와 행위를 대표하게 되며, 반대로 가치와 특징을 부여하는 행위와 오브제는 재현대상에 종속되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 재현단위의 설정은 단순히 개별 행위와 오브제의 집합이 아니라 이

들 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하나의 재현대상을 완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관계된 다른 재현대상의 묶음이 곧 하나의 재현단위인 것이다. 다시 말해 재현대상을 완전히 가깝게 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현단위(Representation Unit)’의 개념을 설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현단위는 오브제·행위와 재현단위와의 관계와 같이, 개념적으로 상위의 재현단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재현단위 간에도 계층적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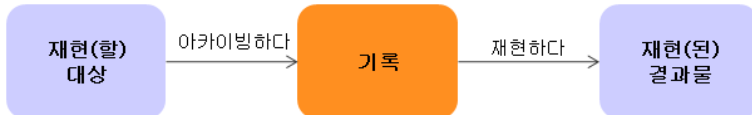
앞서 설명했던 연주행위라는 행위는 연주자, 연주악기, 연주회장 등의 오브제와의 관계를 통해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가치를 부여받으므로 이들의 집합이 연주행위라는 하나의 재현단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주행위라는 재현단위가 연주를 듣는 관객, 연주회 기획 등의 재현단위와 합해져 연주회라는 상위개념의 재현단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 재현대상과 재현단위의 개념>

2) 어떻게 답을 것인가?

재현하고자 하는 재현대상을 완결성있게 재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현단위를 설정하였다면 그에 따른 아카이빙 방안 역시 설정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아카이빙할지 결정하려면 아카이빙과 재현 구조 내에서 아카이빙 결과물인 ‘기록’과 아카이빙할 대상인 ‘재현대상’과의 관계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재현대상과 기록의 관계〉

하나의 대상을 다큐멘테이션하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록이 생산되거나 수집된다. 아카이빙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수집된 기록은 구조화된 방식으로 대상을 재현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재현대상에 여러 기록이 생산되거나 수집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대상과 기록은 1 대 다, 혹은 다 대 다의 관계를 가진다. 하나의 기록 역시 여러 대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이 오브제인 경우와 행위인 경우는 각각 기록으로 담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오브제를 다큐멘테이션하려면 주로 기록을 생산하게 되지만, 행위를 다큐멘테이션하는데 있어서는 기록을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기생산된 기록을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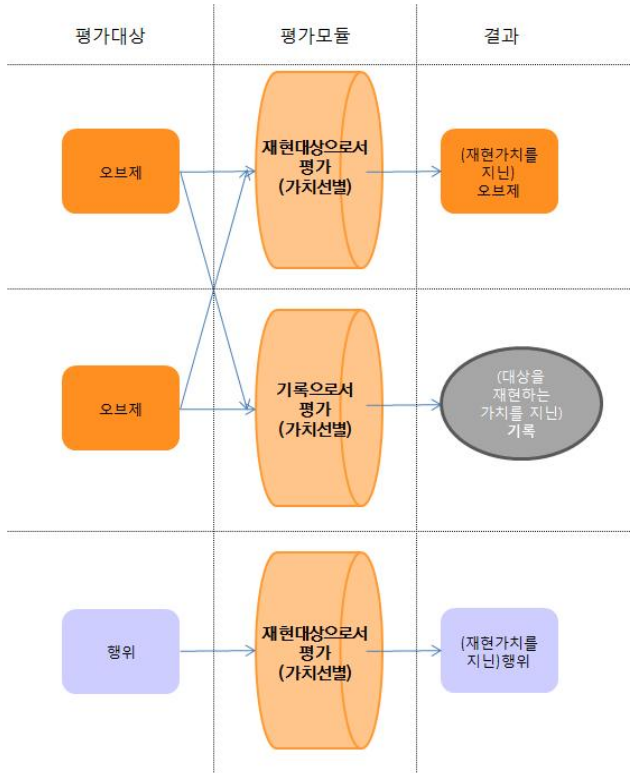
가령 오브제는 대상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방법, 대상을 글로 쓰는 방법, 그림을 그리는 방법 등의 다큐멘테이

션 방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의 경우에는 행위의 결과물로 생산된 기록을 수집하는 형태의 다큐멘테이션 방안이 추가될 수 있다. 행위의 결과물로 생산된 기록은 생산한 행위를 재현하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⁶⁾

그런데 오브제가 그 자체로 행위의 결과물로 존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오브제는 재현할 대상일 수도 있지만, 재현 대상을 재현할 수 있는 기록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가령 연주회에서 연주되는 악기는 재현할 대상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연주행위를 재현하는 기록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오브제에게 재현대상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와 대상을 재현할 수 있는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 각각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오브제가 둘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동일한 대상이 아카이빙 대상으로서의 오브제와 다큐멘테이션한 결과물로서의 기록으로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매커니즘에 따라 대상의 가치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부여되는 가치에 따라 동일한 대상에 대해 다큐멘테이션 할 대상인지 행위의 결과물인 기록인지의 구분이 성립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아카이빙 과정에서 이들 간의 관계를 재현에 적합한 구조로 정의하여 아카이빙 전략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매커니즘을 반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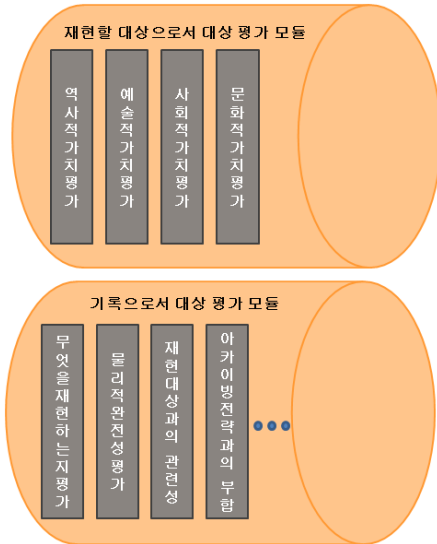
6) Geoffrey Yeo, "Concepts of Record(1) : Evidence, Information, and Persistent Representations", *American Archivist* 70,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7, p334~339



〈그림 3 재현대상의 가치 선별 매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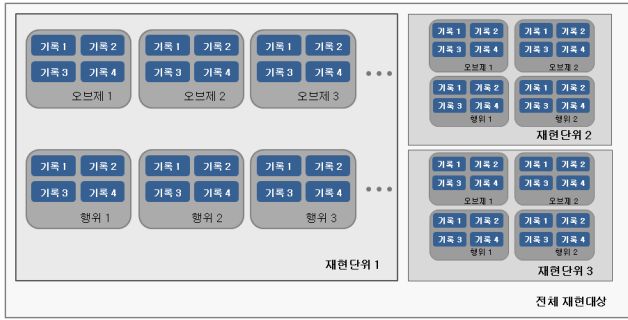
사회가 재현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대상의 역사적 가치·예술적 가치·사회적 가치·문화적 가치 등을 판단하여 대상이 아카이빙 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사회 전체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개인이나 단체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해당 이해당사자에게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재현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결정은 가치 부여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재현의 재료인 기록으로서의 가치는, 재현대상을 얼마나 잘 재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해야 한다. 또한 무엇을 재현하는지, 물리적인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재현대상과 관계는 얼마나 밀접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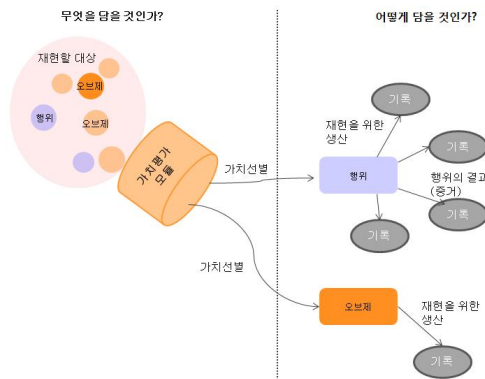
<그림 4 가치평가 모듈의 작동방식>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서의 평가는 기본적인 재현을 위한 아카이빙 전략과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가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아카이빙 전략은 재현대상을 기록을 통해 재현하기 위해 필요한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프레임워크에서 재현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 기록인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뒤따르게 된다.



〈그림 5 아카이빙 전략 프레임워크〉

재현단위 내 각각의 재현대상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는 기록을 수집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구조화한 것이 아카이빙 전략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다. 기록이 재현단위 내에서 어느 부분을 재현하고 있는지, 반대로 대상을 더 완전하게 재현하려면 어느 부분의 기록을 수집하거나 생산해야 하는지를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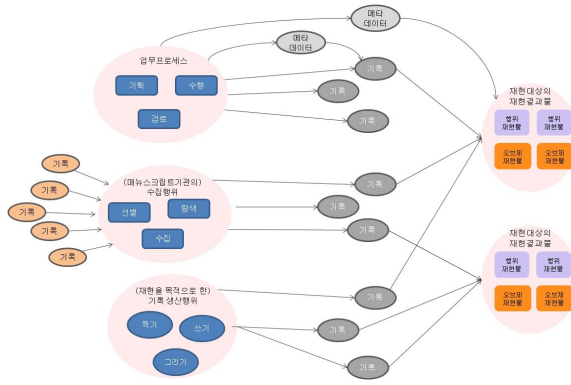
〈그림 6 재현대상에 대한 가치평가와 다큐멘테이션 과정〉

<그림 6>과 같이 재현할 대상을 선정된 기준에 의해 가치를 평가하고, 가치에 의해 선별된 행위와 오브제를 기록으로 담은 과정이 다큐멘테이션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재현대상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관련기록이 조직화된 최초의 질서와 체계를 획득하고 각각의 기록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확보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재현에 필요한 최초의 질서와 메타데이터를 획득해야만 기록을 이용한 재현도 가능하게 된다. 실제로 업무프로세스의 결과로 생산된 기록, 기관 목적에 의해 수집한 기록 즉, 메뉴스크립트들과 재현목적으로 생산한 기록은 각각 획득하는 정보는 일치하지 않는다.

재현메타데이터는 각각의 기록에 대한 메타데이터도 존재하지만 오브제나 행위, 재현단위에 대한 메타데이터도 필요하다. 이들 메타데이터 확보는 다큐멘테이션 당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현 메타데이터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의 업무이용가치나 기관목적 중심의 메타데이터와 분류체계로 이들 정보를 모두 소화하고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현을 위한 아카이빙은 재현대상과 재현단위에 맞추어 원질서와 계층을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특성에 따른 메타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관리하는 것은 조직과 업무중심의 관리체계만으로는 한계를 가진다. 다양한 개인·조직이 자연스럽게 생산한 기록과 재현을 위해 생산한 기록 모두를 재현대상 위주로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7 아카이빙과 재현과정에서 기록의 흐름〉

3. 관리하기 영역

1) 업무이용가치와 재현가능성이 공존하는 기록관리 체계

재현가치를 지닌 대상을 다큐멘테이션하면서 다양한 맥락을 가진 기록을 생산·수집하게 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재현대상의 재현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큐멘테이션 과정에서 생산·수집된 것이다. 이 때문에 재현이라는 아카이빙 목적의 실현을 위해 관리에서도 재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재현은 과거를 기록하고 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한다는 의미에서 기록학적 관점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과거를 현재에 다시 있게 함으로서 그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이용가치 중심의 기록관리 뿐만 아니라 재현가능성을 염두에 둔 관리체계가 필요해지게 된다.

다큐멘테이션 과정을 거쳐 생산·수집된 기록에는 업무프로세스의 결과로 생산된 기록, 기관 목적에 의해 수집한 기록, 재현목적으로 생산한 기록들이 각각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재현대상을 충실하게 재현하려면 재현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류체계 및 속성정보 관리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생산 목적과 맥락이 상이하며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해야 할 질서와 정보 역시 다르다. 그러므로 생산·수집 과정과 맥락이 다양한 기록들에 재현가능성을 적용하여 재현대상과 재현단위를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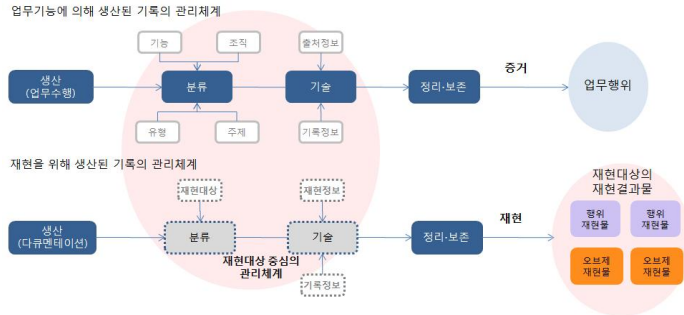
이러한 재현중심의 관리체계는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기존의 기능중심·조직중심의 관리체계와 완전히 별도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별도의 관리체계는 기존 관리체계와 함께 존재할 수 있으며, 각각의 관리체계들은 필요한 기술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별도로 구축한 재현중심의 관리체계는 항상 ‘기록이 대상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가’를 놓쳐서는 안 된다. 재현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관리의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기록관리체계는 기록을 생산한 업무기능과 조직 등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발전되어 왔다. 즉 기록을 생산한 행위 증거로서의 가치와 기록이 가진 정보적 가치에 주목하여 이러한 가치들을 보존하고 이용하기 위해 발전한 체계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체계는 재현에 대한 가치를 유지·관리하기 어렵다. 최선의 재현을 위해서는 완전한 재현대상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의 관리체계는 증거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요구를 이미 충족시키고 있지만 재현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요구는 관리체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기록이 해당 기록을 생산한 행

위를 증거하는데 사용되긴 하지만, 이는 기록을 생산한 행위 일부를 부분적으로 보여주므로 가치에 근거한 전체의 구조화된 재현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



〈그림 8 재현대상 중심의 관리체계〉

재현을 위한 재현대상 중심의 관리체계에는 기록의 분류체계와 속성 관리에 재현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업무이용가치를 반영한 기능중심의 분류체계와 재현가치를 반영한 재현대상 중심의 분류체계가 공존하면서, 기록의 기술정보도 두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록의 일부는 업무이용가치 혹은 재현가치라는 독립된 분류체계를 가지지만, 일부는 둘 모두의 분류체계에 속하는 기록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기록의 기술도 재현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영역과 요소가 설정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기록 자체에 대한 기술정보와 함께 아카이빙 대상에 대한 정보도 중요한 기술영역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재현대상을 중심으로 기록을 분류하고 기술하는 과정에서 기록관리 주체는 최대한 완전한 재현이 가능하도록 최초의 질서

를 보존하고, 재현에 필요한 기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기술 과정에서 재현대상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충분한 재현정보를 담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왜곡을 발생시키는 요소를 가능한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상이 재현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는 범위를 식별하고, 이 내용에 따라 객관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보를 식별하여 제공해주는 것이 좋다. 아카이빙의 과정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재현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으므로, 재현정보 역시 그 맥락 내에서 해석하고 객관성을 유지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현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기록관리체계는 현재의 기록관리체계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닌다. 재현대상을 다큐멘테이션하여 적극적으로 생산·수집한 기록을 관리하려면 기존의 조직이나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기록의 생산·수집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록관리체계가 구비되어야 하며, 이것이 곧 재현대상 중심의 기록관리체계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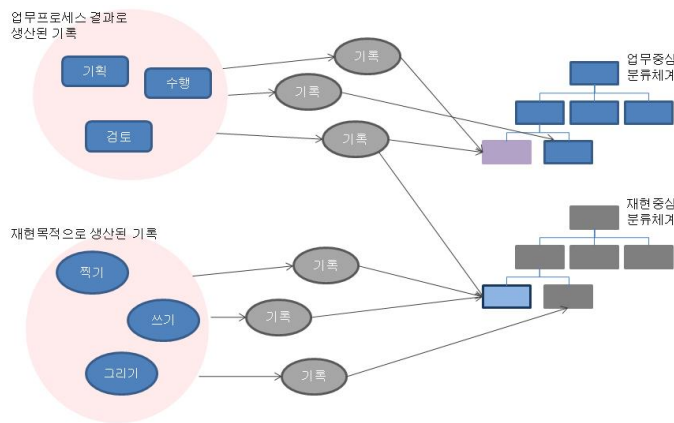
기존의 기록관리체계는 조직이나 업무기능을 통해서 생산된 기록의 업무이용가치를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며, 재현대상을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체계는 부여된 재현가치를 관리·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기록관리체계의 확장은 이전보다 다양한 기록이 관리·보존될 수 있게 하고, 더 다양한 기록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2) 재현을 위한 기록과 출처주의의 재해석

가치 있는 재현대상을 다큐멘테이션하는 과정에서 생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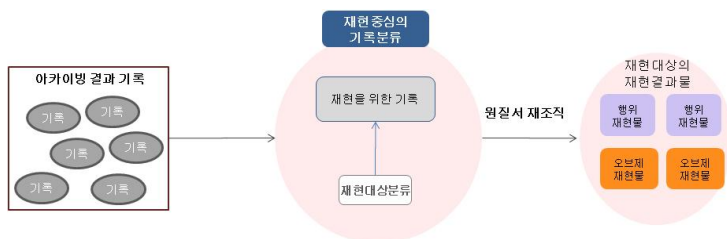
집된 기록들은 재현대상에 대한 최선의 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생산·수집 과정과 맥락이 다양한 기록들에 대해 재현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 ‘재현대상’이 존재하게 된다. 즉 재현대상을 중심으로 기록의 출처에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기존의 기능출처를 적용시켜 기록을 ‘행위의 증거’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재현을 위해 생산된 기록은 ‘다큐멘테이션’이라는 ‘행위의 증거’일 뿐 근본적으로 재현대상에 종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록의 출처를 판별하는데 있어서 재현대상 중심의 출처라는 개념을 기능출처 개념과 복수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현을 위해 생산된 기록은 기존의 기능출처를 적용한다면 다큐멘테이션한 당시의 최초 질서가 훼손되므로 대상 출처를 적용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재현에 대한 기록은 원칙적으로 재현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재현에 필요한 질서를 재조직하고 충분한 재현정보를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9 업무중심 분류체계와 재현중심 분류체계의 관계〉

최초의 질서를 재조직함에 있어서 업무프로세스에 의해 생산된 기록은 업무기능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되고, 재현목적으로 생산된 기록은 재현대상을 중심으로 한 분류체계에 의해 분류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분류체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업무증거와 재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부합하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기록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은 두 가지 분류체계 모두 속하게 되며, 속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기술내용이 다른 필드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각 기관마다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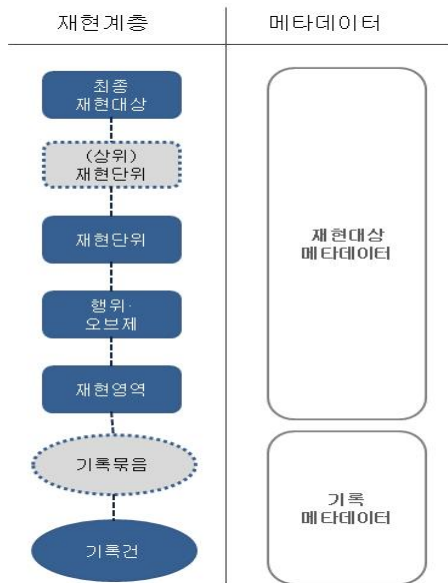
〈그림 10 재현대상 원질서 재조직을 위한 기록 분류〉

재현 중심의 분류체계에서 기록은 기본적으로 다큐멘테이션한 재현대상에 따라 분류된다. 즉 다큐멘테이션한 대상을 기준으로 기록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것은 재현중심의 분류체계에서 기본적인 분류방법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재현영역에 따른 분류 설정이 가능한데, 이는 해당 기록이 하나의 오브제·행위의 어느 영역을 재현하는가를 반영한 분류로서 기록분류체계의 가장 하위분류에 해당한다. 하나의 오브제·행위의 재현이 완결적인 재현이 되려면, 이들

오브제·행위의 어느 영역을 어느 기록이 재현하는지에 대한 재현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재현을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수립하면 자연스럽게 분류·기술 계층 역시 재현을 반영해야 한다. 기록은 재현 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집합적으로 존재하게 되며, 분류·기술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즉 재현대상-재현단위-오브제·행위-재현영역이 가지는 계층에 따라 집합적·계층적 분류·기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11 재현계층과 메타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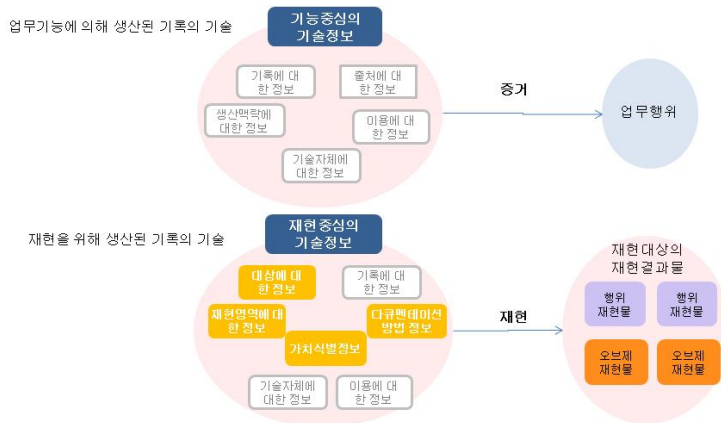
재현을 위해 생산·수집된 기록은 재현정보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계층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기록이 어떤 대상을 다

큐멘테이션하면서 생산·수집된 것인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재현대상 자체의 계층을 반영하게 된다. <그림 1> 재현대상과 재현단위의 개념에서와 같이 재현대상은 재현가치를 가진 행위·오브제로 구성되며, 이 행위·오브제는 또 다시 종속된 행위·오브제를 가진다. 기록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오브제·행위에 종속되기 때문에 재현단위의 계층을 분류·기술의 계층으로 반영할 수 있다. 즉 ‘기록건 - (기록묶음) - 재현영역 - 오브제·행위 - 재현단위 - (상위 재현단위) - 재현대상’의 계층으로 설정할 수 있다. 재현단위는 경우에 따라 복수의 계층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계층은 그대로 분류·기술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류체계 설정에 따라 재현대상을 충실히 재현할 수 있도록 기록의 기술시 재현정보를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 이때 재현대상을 다큐멘테이션하면서 발생한 정보들도 재현정보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다큐멘테이션 시 획득된 정보들은 다큐멘테이션 하는 당시의 맥락을 가장 잘 나타내므로 추후 대상을 재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재현정보 기술영역을 정의하면, 기록의 식별정보, 재현대상 정보, 가치식별정보, 다큐멘테이션 방법에 대한 정보, 재현영역에 대한 정보, 기록 이용정보, 기술(description)자체에 대한 정보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재현대상에 대한 정보와 가치식별정보, 재현영역에 대한 정보이다. 기록의 기술을 통해서 다큐멘테이션에서 발생한 정보들과 함께 향후 재현대상의 재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축적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들이 재현대상 정보와 가치식별정보에 나타나게 되며, 대상을 재현할 경우 어느 부분을 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재현영역에 대한 정보에 담기게 된다.



<그림 12 재현정보 축적을 위한 기록 기술>

재현대상 정보는 기록을 생산한 아카이빙 대상에 대한 정보로서 행위 혹은 오브제에 대한 정보와 그 상위 단위에 대한 정보이다. 여기서는 행위 혹은 오브제에 대한 기본 정보 및 배경 정보, 타 행위 및 오브제와의 관계 등을 포함한다. 또한 대상이 오브제라면 그 오브제의 물리적 특성도 함께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재현대상과 기록과의 관계를 식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

가치식별정보는 재현대상을 아카이빙하기로 선택된 과정, 즉 가치부여 과정과 그로 인해 부여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기술한다. 다큐멘테이션 한 당시의 맥락에 의해 아카이빙하기로 선택된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재현 대상이 가지는 재현가치를 표현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즉 <그림4> 가치평가 모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

상이 재현할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판단되는 과정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또한 자연스럽게 다큐멘테이션 결과물인 기록이 가지는 가치도 함께 나타내게 된다. 기록이 가지는 가치를 재현정보로서 축적하여 대상과 기록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대상의 재현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록이 재현대상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어야 다른 기록들과의 재현정보에 대한 관계와 재현에서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큐멘테이션 방법에 대한 정보는 대상을 다큐멘테이션 한 기술적인 방법과 그 방법이 적용된 이유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다큐멘테이션 방법에 따른 기록의 매체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을 재현하는데 있어서 기록의 매체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물리적·기술적(technical) 방법에 대한 정보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재현 영역에 대한 정보는 하나의 행위 혹은 오브제를 재현하는데 있어서 복수의 기록을 재현에 어떻게 사용하고, 어느 부분을 어떤 기록으로 재현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재현 영역은 재현분류체계 가장 하위에 속하면서 하나의 기술영역에 해당한다.

이외에 식별정보는 해당 기록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말한다. 기록 이용정보는 기록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와 다큐멘테이션 방법에 따라 기록 이용에 대한 제한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기록을 일반적으로 이용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그리고 기술자체에 대한 정보에서는 기술수행자와 기술일자, 수정일자, 특이사항 등의 기술수행에 대한 정보를 축적한다.

영역 구분	내용	재현과의 관계	기술 대상
재현대상 정보	-재현대상이 되는 행위·오브제 및 상위단위에 대한 정보 -재현대상의 맥락 및 배경정보 -타 행위·오브제와의 관계정보	-재현에 필요한 재현대상에 대한 기본정보	재현 대상
가치식별 정보	-재현대상의 가치부여 과정과 부여된 가치에 대한 정보 -아카이빙을 결정할 당시의 가치 판단기준 제공	-가치를 통한 재현이라는 전체 하에서 재현대상과 기록간의 관계 제공을 통해 기록이 가지는 재현에서의 위치 식별	재현 대상
다큐멘테이션 방법에 대한 정보	-다큐멘테이션의 기술적 방법과 적용 이유	-기록의 매체에 따른 재현을 위한 물리적·기술적 방법 제공	재현 대상 / 기록
재현 영역에 대한 정보	-대상에서 기록이 재현해야 하는 영역과 그에 따른 적합한 기록에 대한 정보 제공	-기록건 혹은 기록 묶음이 대상에서 재현하는 영역을 식별	기록
기록식별 정보	-기록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기록건 혹은 기록 묶음과 재현단위와의 관계 식별	기록
기록이용 정보	-기록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	-	기록
기술정보	-기술작업에 대한 정보 제공	-	-

〈표1 재현정보 기술영역〉

이와 같은 재현정보 기술영역을 설정함에 따라 대상의 아카

이빙하면서 발생한 정보들을 최대한 축적하고 이것들이 향후 대상의 재현에 매우 훌륭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현정보 기술은 기본적으로 재현대상의 계층을 반영해야 한다. 계층에 따라서 다루어야 하는 재현정보가 다른데 그것은 기록에 종속된 정보가 아니라 재현대상에 종속된 정보이다. 즉 <그림 7>에서와 같이 대상이 다큐멘테이션될 때 기록에 대한 정보와 기록을 생산한 맥락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집되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기록건의 개별 기술을 통해서 관리될 수 없는 정보들이며 재현대상의 계층에 종속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층기술을 통해서 다큐멘테이션할 때의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게 되어 대상을 재현하는데 더 충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재현을 중심으로 한 대상출처와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한 기능출처를 모두 인정하는 기록관리를 통해 재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두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다큐멘테이션을 통해 생산·수집된 기록의 분류와 기술을 통해 가능하다. 분류·기술을 통해서 다큐멘테이션한 당시의 원질서를 재조직하고 그것의 재현정보를 축적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최선의 재현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분류와 기술은 대상을 재현하는 것의 시작이며 매우 훌륭한 재현도구가 될 수 있다.⁷⁾

7) Kathleen D. Roe, *Arranging and Describing Archives and Manuscripts (Archival Fundamentals Series II)*,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5, 99쪽
정리기술을 통한 기록학적 재현에 대한 내용은 Elizabeth Yakel, "Archival Representation", *Archival Science*, 2003을 참조하십시오.

4. 보기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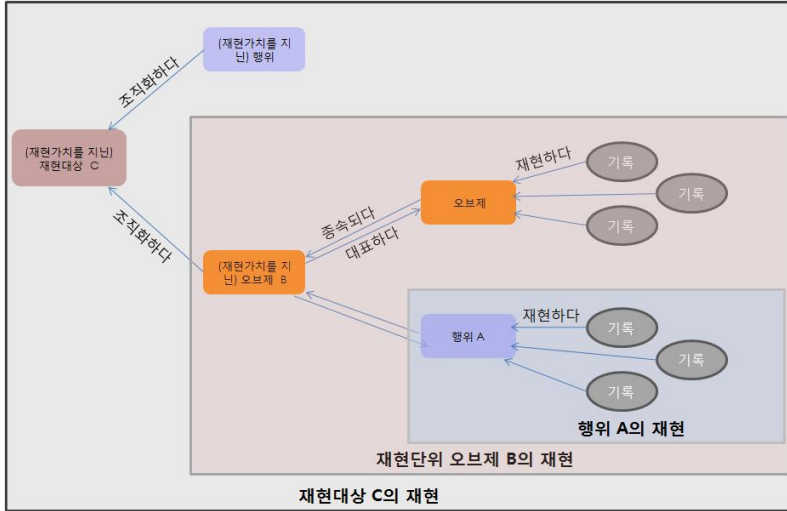
1) 재현중심의 기록활용 확장

기록의 활용은 기록의 가치에 근거하게 된다. 잠재적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록이 가진 정보와 증거성이 기록의 가치로 간주되어 왔다. 쉘렌버그는 이러한 가치를 1차적 가치와 2차적 가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이 구분방식은 현재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1차적 가치와 2차적 가치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식은 기록의 기본속성인 재현가능성을 소화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기록의 증거적 가치는 상당히 수동적인 관점으로, 재현가능성을 포괄하기 위해 기록의 2차적 가치를 확대해서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기록 활용의 관점에서는 기록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확장되어 정보적 목적에 의한 이용·증거적 목적에 의한 이용·내재적 가치에 따른 이용과 더불어 재현을 위한 이용방식이 필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재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록의 이용은 곧 기록을 이용하여 재현대상을 재현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록을 통해 재현대상을 재현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기록을 이용해 재현대상을 아카이빙하는 역순에 해당한다. 재현대상을 아카이빙하기 위해 기록을 생산하고 수집했다면, 반대로 생산하고 수집한 기록을 이용하면 최초 아카이빙한 재현대상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이다. 방법론적으로는 재현대상을 다큐멘테이션한 기록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가공하느냐가 재현의 핵심에 해당하게 된다.



〈그림 13 재현의 구조와 계층〉

2) 아카이빙과 재현의 조응

기록의 재현중심체계에서 ‘보기영역’은 다큐멘테이션을 통해 생산·수집된 기록들을 이용하여 아카이빙 대상을 재현하는 영역이다. 여기서는 재현대상을 선정하고, 재현대상과 기록을 연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재현방식을 검토하여 실제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보기 영역에서 기록을 이용한 재현은 무엇을 재현할 것인가가 최초의 작업이 된다. 재현은 구조적으로 아카이빙의 역에 해당하므로 아카이빙한 대상의 범위 내에서 재현대상을 설정해야 한다.

무엇을 재현할 것인지 설정하는데 있어서 재현단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재현단위는 하나의 재현대상을 완결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가치중심으로 설정한 단위이므로 이 재현단위 구조를 실제 재현에서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재현단위 구조를 의식하면서 재현할 대상을 정했다면 재현대상의 구조를 분석해야 한다. 이는 재현대상의 계층구조를 분석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재현대상이 몇 개의 재현단위로 구성되는지, 각각의 재현단위는 얼마나 많은 오브제와 행위를 포함하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하나의 기록은 하나 이상의 오브제나 행위와 연결되는데 재현대상의 가장 하위에 해당하는 이들 오브제와 행위에 어떤 기록들이 연결되는지 파악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오브제나 행위에 연결되는 기록이 재현대상의 어느 부분을 재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는 재현영역에 대한 분류체계와 기술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완성되면 재현대상의 구조와 기록의 연결구조가 보이게 된다.

재현대상과 기록과의 연결과 더불어 재현에 필요한 것은 재현정보의 이용이다. 재현정보는 기록과 재현대상과의 관계를 설명해주며, 재현을 위해 기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재현구조를 정의하고 재현정보를 확보했다면 재현의 방식을 판단해야 한다. 재현의 방식은 웹 콘텐츠, 실물전시, 영상제작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재현의 방법론과 기술적 선택은 재현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재현중심의 아카이빙과 관리는 최종적인 재현대상의 재현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 다큐멘테이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록과 정보를 획득해야만 효과적이

고 완결적인 재현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아카이빙 결과물에 대한 적합한 관리는 재현의 충분조건에 해당하며, 재현방식의 기술적 구현은 재현의 필요조건이라 하겠다.

5. 맺음말

기록학에서 재현에 관심을 보인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기록에 대해 무엇인가를 증명하거나 정보를 획득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왔고, 기록이 가진 재현가능성은 최근에 와서야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록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재현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닌다면 지금까지의 기록학은 기록의 재현가능성에 주목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역사학이나 민속학이 기록의 재현가능성에 기인하여 ‘사료’의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기록학에서 재현가능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록을 적극적으로 제공했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기록학은 기록이 가진 맥락과 속성, 계층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다. 이는 재현중심의 기록학 영역 확장의 근거가 된다. 기관의 목적에 의해 기록을 수집하거나 이관받아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기존 구조를 넘어, 적극적으로 재현 가치가 있는 대상을 담고 관리하여 보여줄 수 있는 영역까지도 기록학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영역은 기록이 가진 속성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관점에서는 기존의 기록학 영역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재현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대상을 담고 관리

하여 보이는 과정 역시 기존의 기록관리과정과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전까지와는 달리 필요한 경우 기록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기도 하며, 업무이용과 상관없이 재현을 위한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 생산·관리 주체의 역할과 기록 관리 원칙의 변화가 요구된다.

재현 중심의 기록학은 기록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대상을 재현할 가치가 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하나의 기록을 재현의 도구로 볼 것인지, 재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하나의 재현대상을 완전하게 재현할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더 완전한 재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요소는 무엇인지도 판단해야 한다. 기록학의 영역 확장에 따라 해결해야 할 과제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현 중심의 기록학은 해결해야 할 과제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재현 중심의 기록학은 현재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공기록 일변도인 기록관리영역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유·무형 문화유산, 기념물품·의식 등의 보존·전승에 대한 수요는 현재까지 다양한 학문분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재현 중심의 기록학이 더욱 발전된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다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현경·이건옥, 『아현동 사람들 이야기』, 국립민속박물관, 2009 (e-book
<http://www.nfm.go.kr:9090/2008-ahyeon1/dvd/flash/main.html>)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홍파동 홍난파 가옥 등 8개소 등록문화재 기록화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6
-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2008
- Kathleen D. Roe, *Arranging and Describing Archives and Manuscripts (Archival Fundamentals Series II)*,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5
- 김민옥, 「무형문화의 복원과 재현을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 조선시대의 민의상달제도 신문고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6호, 인문콘텐츠학회, 2005
- 류한조·김익한, 「기록콘텐츠 개발모형에 관한 연구 : 건축문화재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9권 제1호, 한국기록관리학회, 2009
- 오늘을 기록하는 사람들, 「<오늘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아카이빙한 오늘」, 『제1회 전국기록인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기록관리학회·한국기록학회, 2009
- Geoffrey Yeo, “Concepts of Record(1) : Evidence, Information, and Persistent Representations”, *American Archivist* 70,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7

Elizabeth Yakel, “Archival Representation”, *Archival Science*, 2003

ABSTRACT

A Study on Archiving Science Focused on Representation - Putting in, Managing, and Viewing

Ryu Han-jo, Lee Hee-Sook

In recent time, archival science has been in charge of positively preserving and handling with valuable things, as well as managing established ones. However, even though several archival methodologies that manage contexts among tasks, organizations and subjects exist nowadays, there is a lack of theoretical methodology on archiving focusing on valuable things.

In this sense, this article dealt with a theoretical methodology which carries out archiving valuable things and represents it based on the value of records. Also, this paper, which covers a methodology that carries out archiving and representing one focusing on the value of the one to preserve, is divided into three chapters: putting in, managing, and viewing.

To begin with, in the chapter of putting in, the methodology of documentation based on a strategy to distinguish and represent the value of the valuable things were explained. In addition, the article tried to explain the definition of how the valuable things based on the value of it can be put in, and presented how to divide the one for representation into the object and the activity so as to provide an

effective approach. At the same time, as this paper took an approach to the value of the one, it proposed a way to be able to do archiving effectively by applying a representation unit which has its own value.

Secondly, in the chapter of managing, representation class and metadata for managing with a representable structure was considered. Metadata categories were illustrated in order to present the class from individual records to final representation valuable things and to make representation with ease.

Furthermore, in the chapter of viewing, the process of representation using theoretically archived records was explained. In fact, viewing is the descriptive domain in general, yet this paper focused on the conceptional part.

As a consequence, in this paper, a series of process was considered, which starts from how the subject of representation was archived to managing it. Moreover, the process has a meaning by itself in that it gives a practical method to be applied. Finally, the paper suggested that the argumentation on representation be expanded in the field of archival science so as to present theoretical grounds in this sort of work.

key word : Representation, Archiving, Documentation, Value based archiving, Representation unit